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

Mother'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s Peer-Relation

동의대학교 아동·가정환경학과
교수 정현희
신라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오미경

Dept. of Child & Family Environment, Dong Eui Uni.

Prof. : Jeong Hyeon-Hee

Dept. of Child Development, Silla Uni.

Lecturer : Oh Mi-K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Is there any gender difference in the mother's verbal control and the child's peer relation? (2)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verbal control and the child's peer relation? (3) Is the child's peer-relation influenced by the mother's verbal contro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7 boys and 144 girls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in Busan. Lee, Kyung-Hee's questionnaires(1993) on mother's verbal control modes and Lee, Ju-Lie's questionnaires(1994) on child's peer relation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mother's imperative mode for boys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at for girls. Boys perceived mother's verbal control mode as more imperative.
- 2) There were significantly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position-oriented mode and boy's peer relation, between mother's person-oriented mode and boy's peer relation, and between mother's position-oriented mode and girl's peer relation.
- 3) The mother's position-oriented mode and the mother's person-oriented mode were the predictor variables influencing on child's peer rel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며, 또래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자신을 새로이 인식하고 소속감을 경험하며, 비공식적인 정보를 제공받는다. 또래를 통해 상호작용의 기술을 습득하여 다른 사람과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는 기술도 습득한다(Bandura, 1977; Damon, 1977). 따라서 또래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의식 및 사회적 현실감을 발달하도록 도와 주며, 부모형제가 대신하기 힘든 상호보완적 역할로 기능을 하고(Rubin, 1982) 있고, 아동의 성장에 매우 필요한 대인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우정 개념 발달과 또래내에서의 수용도, 인기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우정의 발달과 또래내의 수용도, 인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주로 아동의 개인적 특성, 조망 능력, 자아존중감, 기질,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등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이 처음 접하는 환경은 부모-자녀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학대받은 아동보다 더 일찍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아감을 개발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며,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Damon, 1977). 즉 아동 초기에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그렇지 못한 유아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고(Easterbrook & Lamb, 1979), 초기의 애착이 성장 후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 능력을 수월하게 해 주었다((Sroufe, 1972). 반면에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학대받은 아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다(Cicchetti & Schneider-Rosen, 1991). 부모의 지배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들을 소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받게 만들며, 종종 열등감을 느끼게 해 수동적으로 행

동하게 한다(Hurlock, 1981). 이는 만족한 어머니와의 관계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확신감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기(Ainsworth, 1972)때문으로 여겨지며, 어머니-자녀관계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관계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자녀관계와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어머니-자녀관계와 아동의 발달관계를 규명할 때 전반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구체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봄으로써 아동발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서선주, 1988)고 한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사회화의 중요한 매체로 언어를 설정하고, 아동의 사회화는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Bernstein(1971)의 사회언어학적 접근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로 어머니가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은 언어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김선미, 1994).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명령적 통제, 지위지향적 통제, 인성지향적 통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Bernstein, 1971), 명령적 통제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통제시 신체적 벌이나, 위협, 언어적 체벌 등에 근거한 통제이고, 지위지향적 통제는 아동에게 자신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타인들과의 관계규칙을 학습하도록 하게 하여 통제하는 것이다. 인성지향적 통제는 개인의 의도, 동기, 성향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다. 근래에 어머니가 자녀 양육시 사용하는 언어유형이 자녀의 제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아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이경희, 1993). 인성지향적 통제가 이루어질 때 아동들은 자신의 행동결과를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에 대한 판단과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며, 자신에 대한 나뉠대로의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수용적이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일 때 아동은 더 안정되고, 사회적 능력이 높으며(김정아, 1990), 협동성과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다(한중혜, 1980). 또한 이런 양육행동은 더 유능하고 자율적인 자녀의 성격과 관계되며, 유능하고 통솔력적이고, 독립적인 아동이 또래관계에서는 인기가 있었다(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반면에 지배적이고, 권위적이며, 엄격하고, 명령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소심하고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자아감을 지닌 아동의 행동과 관계가 있었고, 이런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호혜적인 상호작용이 적게 나타났다(Lieberman, 1977). 또한 또래수용성도 낮았다(도현심, 1995). 위에서 보듯이 지배적이고, 엄격하며, 명령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명령지향적 언어통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민주적이고 수용적이며, 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인성적 언어통제와 유사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간과되어 왔던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혀 아동의 또래관계지도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연구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차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에서는 인성지향적 통제와 지위지향적 통제가, 중졸이하에서는 명령적 통제가 높으며, 중류계층 이상에서는 인성지향, 지위지향, 하류계층에서는 명령적 통제가 많은 것으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이경희, 1993),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차이에 일관성이 없다. 즉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는 차이가 있는데, 남아의 경우는 명령적 통제와 지위지향적 통제가 월등히 높은 반면, 여아에게는 인성지향적 통제가 높았다(서선주, 1988)는 연구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이경희, 1993). 또한 아동의 성차이에 따른 또래관계 연구를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강한 우정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김미정, 1985; Maccoby & Jacklin, 1974; Berndt, 1982)가 있는 반면 남아와 여아간에 성차이가 없다는 연구(박희숙, 1984; 정경미, 1992; Bigelow & LaGaipa, 1975)도 보고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성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여기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본다.

2. 연구문제

위에서 진술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 셋째,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해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져왔고, 어머니의 언어통제와 아동의 또래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 추론에 도움이 되는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출생 직후부터, 혹은 태내에서부터 시작되는 관계이며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단 시일내에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오랜 기간의 상호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이다. 그리고 아동은 주위환경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해 지각하게 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존중과 수용을 받고, 관심있는 대우와 성공적인 경험 등을 겪게 되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한다(Coopersmith, 1981). 어릴 때 형성된 부모-자녀관계는 최초의 대인관계인 동시에 가장 밀접한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성격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서봉연, 이순형, 1995).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아동은 이런 느낌이 일반화되어 자기와 주위세계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갖게 된다(Ainsworth, 1972). 생의 초기에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확신감의 발달로(Ainsworth, 1972), 후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 능력이 가능하며(Sroufe, 1972), 실제로 1세 때 안정된 애착을 이룬 아동이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Easterbrook & Lamb, 1979).

아동들은 성장해 감에 따라 부모에게 덜 의존하게 되며, 아동들은 자라남에 따라 부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래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긍정적이며, 성취에 대해 칭찬을 해 주고,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자녀와 대화를 즐기며, 자녀의 지도와 훈육에 일관성이 있을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또래와의 관계에 자신감을 갖는다(Coopersmith, 1981). 부모의 애정, 또는 온정, 일관된 기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결부되고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준다(Dickstein, 1973). 권위주의적 통제형의 부모는 아동의 흥미나 관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허용적인 부모는 아동에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으며, 자기신뢰적인 행동이나 책임을 다한 아동의 행동에 강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자기통제성, 자기신뢰성, 독립성 등이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Baumrind, 1967).

실증연구들은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가 아동의 또래와의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을 보여주었고(정현희, 장혜경, 1994), 민주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행동으로 아동 행동을 주도하는 부모를 가진 아동은, 엄격한 양육행동을 취하는 부모의 아동에 비해 협동성과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고(한중혜, 1980), 부모의 양육행동이 권위적일 때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일 때 아동은 더 안정되고, 사회적 능력이 높았다(김정아, 1990). 그리고 부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허용적이면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호혜적인 상호작용이 적게 나타났다(Lieberman, 1977). 엄격한 양육방식을 취하는 부모의 아동도 민주적이며, 수용적인 양육방식을 취하는 부모의 아동보다 협동성과 사회성이 낮았다(최경순, 1992).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낮게 나타났고(Turner

& Harris, 1984), 적대적이고 일관성없는 부모의 아동은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였다(Petit et al., 1988). 또한 권력단언적인 훈육을 받은 아동에 비해, 귀납적 추론의 사용을 받은 아동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Hoffman, 1975).

한편 아동의 또래관계는 평등적 관계이며, 자기중심적 행동과 태도를 현실에 맞게 더 성숙한 형태로 변화시켜가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로써(정경미, 1992), 공감 및 상호이해가 또래관계의 기본이 된다((Bigelow, 1977). 실증연구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견해를 추론할 수 있는 역할조망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며(Damon, 1981), 지지, 이해, 수용이 또래관계 형성의 주요 요소임(Lowenthal, 1975)을 밝히고 있다. 아동들의 사회인지능력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관련이 있으며(이순형, 1982),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Perry & Bussey, 1984) 때문이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란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특히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어머니 양육행동의 한 측면으로, Bernstein(1971)의 언어사회학 이론에 근거한 개념이다.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대표적 중재 수단의 하나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의 기능과 함께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동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이현주, 1990). Bernstein(1971)은 각 사회구조에는 언어적 선택과 조직을 통제하는 독특한 어법이 존재하며, 사회구조의 다양성을 이런 어법에 의해 설명하고자 했다. 이 어법을 어머니의 언어표현에서 보면 명령적 통제유형, 지위지향적 통제유형, 인성지향적 통제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가 아동을 사회화시키는 과정은 언어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김선미, 1994), 어머니는 아동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언어형태를 갖추어야 하며(안명신, 1987),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아동의 다른 사회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아동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거의 없으며, 주로 제한된 어법에 의해 표현되고, 신체적 벌이나 위협, 언어적 처벌

등에 근거한 명령적 통제는 아동에게 지시에 대한 복종과 순종만을 허용한다. 그리고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그 사회의 보편적이거나 특수한 지위에 내재한 규범에 근거한 지위지향적 통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상태를 지각하도록 하는 방식에 의해 사회적 규칙들을 내면화하도록 한다. 또한 지위지향적 통제는 아동을 자신과 유사한 특성이나 보편적 지위를 가진 다른 아동과 관련짓게 한다. 개인의 형식적 지위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대인적 요소 및 개인의 내적 특성에 근거한 인성지향적 통제는 아동의 행동 통제시 아동의 의도나 동기, 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이루어질 때 아동들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언어양식을 통해 규칙을 학습하게 되어 자신의 행동 결과를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에 대한 판단과 책임을 짐이 가능하게 된다(Bernstein, 1971). 이렇게 볼 때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라 아동들은 다른 사회관계의 틀을 형성함을 가정해 볼 수 있고, 앞의 어머니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서 보듯이 지배적이고, 권위적이며, 명령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명령지향적 언어통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민주적이고 수용적이며, 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인성적 언어통제와 유사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배적이고, 권위적이며, 명령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소심하고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자아감을 지닌 아동의 행동과 관계가 있었고, 이런 아동은 또래수용성이 낮게 나타났고(도현심, 1995), 수용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더 유능하고 자율적인 자녀의 성격과 관계가 있었으며, 유능하고 통솔력이고, 독립적인 아동이 또래관계에서는 인기가 있었고(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사회성과 협동심이 높았다(최경순, 1992). 이렇게 볼 때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와 관계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양육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서선주, 1988;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은 현대에 이르러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정현희, 1990)

등이 있고,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남아의 경우 명령적 통제와 지위지향적 통제가 월등히 높은 반면, 여아에게는 인성지향적 통제가 높았다(서선주, 1988)는 연구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이경희, 1993). 아동의 성차이에 따른 또래관계 연구를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밀하고 밀접한 친구관계를 보이며(Maccoby & Jacklin, 1974), 더욱 친사회적이고, 독점적인 우정관계를 가지며(Berndt, 1982), 애정이나 지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연구(김미정, 1985)가 있는 반면 Bigelow와 LaGaipa(1975)는 친구에 대한 기대 개념의 연구에서 21차원 중 2차원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차이는 도움받기에서는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조직놀이에서는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난 것 외의 19차원에서 성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박희숙(1984), 정경미(1992)도 우정개념에 성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성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에 있어 성별의 차이도 보고자 한다.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부산 시내의 중류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임의표집하였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57명과 여학생 14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40세 이하가 35.9%, 40-50세가 60.1%이며, 어머니의 연령은 40세 이하가 58.8%, 40-50세가 39.5%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 9.9%, 고졸 43.8%, 전문대졸이상이 57.13%이고,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하 15.9%, 고졸 44.5%, 전문대 졸업이상이 42.2%로, 부모 모두 고졸 이상이 다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단순, 노무직 등이 7.6%, 자영 및 일반사무가 74.8%, 전문직이 16.6%이며, 가정의 수입은 150만원 이상이 78.7%였

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대상 아동들은 이와 유사한 연구에 선발된 적이 없는 아동들이다.

2. 측정도구

측정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의 또래관계 척도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Bernstein(1971)의 이론에 근거하여 Gumperz(1973)가 제작한 8개 개방형 질문과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문항을 구성한 이경희(1993)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상황을 제시한 28개 각 상황에 대해 세가지 언어통제유형 즉 명령적 통제, 지위지향적 통제, 인성지향적 통제의 3 언어통제유형이 제시되고, 각 언어통제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에 1점, 그렇지 않은 편에 2점, 그런 편에 3점, 항상 그런 경우에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답하게 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는 각 상황마다 3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점수가 주어짐으로써 어머니의 언어통제는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 어머니가 세가지 언어통제 유형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정도의 차이임을 측정도구에서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등간척도화함으로써 척도의 타당화, 신뢰도에서 다양한 통계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문항분석,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α 는 명령적 통제가 .95, 지위지향적 통제가 .91, 인성지향적 통제가 .93이며, 반분신뢰도는 명령적 통제가 .95, 지위지향적 통제가 .91, 인성지향적 통제가 .94,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명령적 통제가 .91, 지위적 통제가 .86, 인성적 통제가 .89였다.

2) 아동의 또래관계

아동 또래관계의 측정은 Dubow, Ullman(1989), Furman, Bierman(1983), 박성수, 오성심(1972) 등의

연구를 기초로 또래관계 측정의 문항을 구성한 이주리(1994)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반응, 자아 지지, 공동활동, 교환적 협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반응은 위로, 애정에 대한 내용, 자아지지는 인정, 칭찬에 대한 내용, 교환적 협동은 충고, 도움제공, 정보제공의 내용, 공동활동은 함께 놀기, 함께 지내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척도는 정서적 반응, 자아지지, 공동활동, 교환적 협동의 총점이 또래관계 점수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전혀 안 그렇다에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런 편이다에 4점, 항상 그렇다에 5점의 5점 리커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 α 는 .77 이었고, 아동평정용이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조사는 1997년 4월 1주부터 4월 3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자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협조를 부탁하였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는 담임선생님의 협조 하에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 평균, 표준편차, MANOVA, F검증, Pearson의 상관, 회귀분석 등을 하였다. 모든 경우의 유의수준은 $p=.05$ 로 하였으며,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PC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를 분석하였다.

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의 또래관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의 또래관계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어머니의 언어통제, 아동의 또래관계 차이

변인	아동 성별	남아	여아	F값
		M(SD)	M(SD)	
통제	명령적	2.04(.77)	1.79(.62)	5.43**
	지위적	2.60(.62)	2.71(.55)	1.49
	인성적	2.49(.69)	2.62(.68)	1.39
또래관계		3.15(.54)	3.21(.54)	.33

**p < .01

〈표 1〉에 제시된 바와같이 남아와 여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유형,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 명령적 언어통제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도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유형,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 명령적 언어통제유형의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통제유형은 보편적 규범이나, 아동과 유사한 특성이나 보편적 지위를 가진 다른 아동과 관련된 언어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여아간의 어머니 언어통제유형에서 차이가 인정된 부분은 명령적 언어통제유형(F=5.43, p < .01)으로 어머니들은 남아에 대해 더 많은 명령적 언어통제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아동의 또래관계는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남아 M=3.15 : 여아 M=3.21), 남아와 여아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간의 상관관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의 또래관계간의 상관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언어통제유형, 남아의 또래관계 간의 상관을 보면 어머니의 지위지향적 통제와 남아의 또래관계(r = .36, p < .01), 어

〈표 2〉 어머니의 언어통제, 아동의 또래관계의 상관관계

	명령적	지위적	인성적
남아의 또래관계	.10	.36**	.43**
여아의 또래관계	.16	.26*	.15

*p < .05, **p < .01

머니의 인성지향적 통제와 남아의 또래관계(r = .43, p < .01)간에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많이 사용할 경우 남아의 또래관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여아의 또래관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유형과 여아의 또래관계(r = .26, p < .05) 간에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여아의 또래관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아의 경우와는 달리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또래관계 간에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아동 성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및 아동의 성별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기여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아동의 또래관계는 어머니의

〈표 3〉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제 변인의 설명력

	B	β
명령적	-.12	-.09
지위적	.16	.18*
인성적	.11	.15*
성별	.13	.07
R ²	.12	

*p < .05

지위지향적 언어통제($\beta = .18, p < .05$)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beta = .15, p < .05$)가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12%였다. 아동의 지위, 사회적 규범, 유사한 다른 아동과의 비교에 근거하여 통제를 하거나, 아동의 특성, 의도, 동기, 성향 등을 고려하여 통제하는 것이 아동의 또래관계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아동의 사회화에 있어 어머니는 중요한 사회화의 동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는 관계가 있으리라고 추론하고, 이 관계에 대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보았는데 명령적 언어통제에서 어머니들이 남아에게 더 명령적 언어통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아에게 더 많은 체벌과 꾸중, 명령을 사용하며(Block, 1989),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큰 소리로 꾸짖는다는 연구(정현희, 1990)와 일치된 결과로 보인다.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에서는 성차이가 보고되지 않았는데, 우리사회가 지위지향적 사회이므로 남아, 여아에게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다 사용되므로 성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현대 부모교육, 민주이론, 전통적 성차이의 변화 등으로 부모의 자녀통제가 점차 타이트거나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추세에 있고(이경희, 1993), 이는 남녀아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아동의 또래관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또래관계가 보통으로 나타난 것은 어릴 때부터 경쟁을 조장하고, 친구보다 앞서기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되었으리라고 사료된다. 아동기는 인간행동의 형성시기로 이 시기의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이 후 아동의 대인관계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을 고려할 때 아동또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래관계에서는 성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차이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측정도구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점수가 총점으로 보고되었는데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 도와주기, 행동적으로 도와주기, 함께 놀기, 역할조망 등으로 나누어 본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또래관계에 대한 추후연구가 요청된다고 사료된다.

둘째, 아동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상관을 보면 남아의 경우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또래관계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 정서적 지지 등을 고려한 측면이 있고, 또래관계는 수평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공감, 수용, 배려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함을 볼 때(Bigelow, 1977),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결과는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도 상관이 나타났는데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또래관계에서 인기가 있는 아동은 유능감, 통솔력, 지도력이 있는 아동이며(Mussen 외, 1984), 어머니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남아의 유능감, 지도력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정현희, 최경순, 1997)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에게 역할재량권을 부여하고, 부모가 아동을 수용할 때 아동의 대인관계능력은 발달된다는 연구(Lifshitz & Ramot, 1978), 부모의 자율지향적 행동은 아동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동의 유능성을 높여주며(정현희, 최경순, 1997), 아동의 유능성은 또래관계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Pettit, Dodge & Brown, 1988)와 일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명령적 언어통제와 또래관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배적이며, 제한적인 양육행동을 받

은 아동은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경향(Lifshitz & Ramot, 1978)이 있다는 연구나, 엄격한 양육행동, 지배적이며,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양육행동은 또래관계에서 아동의 수동성(Lieberman, 1977), 아동의 낮은 협동과 낮은 사회성(최경순, 1992; 한정혜, 1980)과 관계가 있고, 수동적인 아동은 낮은 또래수용성을 보였다는 연구(도현심, 1995) 등에서 어머니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또래관계간의 부적상관을 유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가 지배적이며, 엄격하고 제한적인 양육행동과 명령적 언어통제유형간의 관련 정도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연구대상, 측정도구 등)에 의한 것인지 추후 연구에서 밝혀져야 되리라고 본다.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여아의 또래관계 간에 상관이 나타났고,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명령적 언어통제와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아동의 지위에 따른 설명이나 통제, 보편적인 다른 아동과의 비교가 여아의 유능성이나 지도력과 상관이 있으며(정현희, 최경순, 1997), 여아의 또래관계에서도 지도력이나 유능성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Paster, 1981)에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이 일부 가능하다고 추론된다. 인성적 언어통제유형과 여아의 또래관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려, 동정, 이해 등은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또래관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요즈음 여아에게 지도력, 유능성, 적극성 등 과거 남아에게 유능한 것으로 여겨왔던 특성이 여아에게도 강조되면서, 이 특성이 여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어, 여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영향력을 감소시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사료된다. 여기에 대한 추후연구가 요청된다. 명령적 언어통제와 여아의 또래관계에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남아의 경우와 같다고 사료된다.

세째, 아동의 또래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 아동의 의도, 특

성, 동기 등을 고려하는 통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배려, 공감과 관련될 수 있기때문이라고 여겨지며, 지위지향적 통제가 아동의 유능성, 지도력과 상관이 있었으며, 지도력과 유능성이 또래내의 인기도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에서 또래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설명력은 높지 못했다. 이는 아동이 학동기에 들어가면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어머니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어머니의 통제유형을 아동이 오랜 시간 접했기 때문에 면역이 되어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이경희, 1993)고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있음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이제까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어 연구되고 있는 아동의 사회인지능력, 아동의 성격특성, 사회적 능력, 등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의 영향력이 아동의 초등학교 시기에 감소하나,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또래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또래관계는 단일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변수에 의해 발달되므로 이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도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미정(1985). 아동기 우정의 개념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선미(1994).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제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도현심(1995). 6학년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5.
- 5) 박희숙(1984). 6, 7세 아동의 친구관계 개념 발달

- 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서봉연, 이순형(1995). 발달심리학. 중앙적성출판부.
 - 8) 서선주(1988).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안명신(198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공격행동.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이순형(1982). 모·자녀간 상호소통과 아동의 감정조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2) 이현주(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정경미(1992). 아동의 역할조망과 우정개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정현희, 장혜경(1995).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묘화법에 의한 부모자녀관계측정 타당화 연구 미술치료연구, 2-1, 38-50.
 - 17) 정현희, 최경순(199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63-175.
 - 18)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Ainsworth, M. D. S.(1972). Attachment and dependency: A comparison, In J. L., Gewirtz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3,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
 - 21)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 Psychology Monograph*.
 - 22)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23) Bernstein, B.(1971). Class, Codes and controls (volume 1): Theoretical studies toward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24) Bigelow, B. J.(1977). Children's Friendship Expectations, *Child Development*, 48, 246-253.
 - 25) Bigelow, B. J. & LaGaipa J. J.(1975).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1(6), 857-858.
 - 26) Block, J.H.(1989). Differential premiese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Child Development*, 1335-1354.
 - 27) Cicchetti, D. & Schneider-Rosen, K.(1991). Early self-knowledge and emotional development: Visual self-recognition and affective reactions to mirror self-images in maltreated and todd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71-478.
 - 28) Coopersmith, S.(1981).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Inc.
 - 29) Damon, W.(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Francisco: Jossey-Bass.
 - 30) Damon, W.(1981).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Francisco: Jossey-Bass.
 - 31) Dickstein, E.(1973). Theory and Measurement of Self-Esteem, *Journal of Experiment Personal & Clinical Psychology*, 1, 23-30.
 - 32) Douvan, E. & Adelson, J.(1966). *The adolescence experiance*. N. Y. Wilew.
 - 33) Easterbrooks, M. A. & Lamb, M. E.(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nfant competence in initial encounters with peers, *Child Development*, 50, 380-

- 387.
- 34) Elkind, D. & Weiner, I.B.(1978). *Children and Adolescents*. N. Y.: Oxford University Press.
- 35) Hazen, N. L. & Durrett, H. E.(1982). Relationship of security of attachment to exploration and cognitive mapping abilities in 2-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51-759.
- 36) Hoffman, M.L.(1975). Altruistic behavior and parent 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937-943.
- 37) Hurlock, E. B.(1981). *Child Development*. New York : McGraw-Hill. 497.
- 38) Lieberman, A.F.(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Relation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 39) Lifshitz, M. & Ramot, L.(1978). Toward a Framework for Developing Children's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Implication from the Kibbutz System. *Child Development*, 49, 85-95.
- 40) Lowenthal, M. J.(1975). *Four stages of Life*. San Francisco: Jossey-Bass.
- 41) Maccoby, E. E. and Jacklin, C. N.(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ornia:Stanford University Press.
- 42)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C.(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Harper international edition.
- 43) Paster, D. L.(1981).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initial sociality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6-335.
- 44) Patterson, C.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45) Patterson, C. J., Kupersmith, J. B. & Griesler, P. C.(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46)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Prentice-Hall, Inc.
- 47) Pettit, G.S., Dodge, K.A., & Brown, M.M.(1988). Early experience, social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48) Rubin, Z.(1982). *Children's Friendship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49) Sroufe, L. A.(1979).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50) Turner, P.H., & harris, M.B.(1984). Parental Attitudes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4, 105-113.

